

# 강기정 '재선 도전'에 일찌감치 다자구도 형성

## 광주시장

姜-민형배, 리턴매치 성사 주목  
문인 북구청장 '대항마'로 부상  
이병훈 "출마"·이형석 "고심중"  
혁신당 후보 배출 여부도 관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6·3 지방선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벌써 차기 광주시장 후보군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광주시장 선거는 현재 최소 6명 이상이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강기정 시장의 재선 여부다. 강 시장은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재선 도전이 유력시되고 있다.

고흥 출신인 강 시장은 17·19대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 정무수석, 이재명 대

통령 후보 호남총괄특보단장 등을 지냈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현역 이용섭 시장을 꺾고 공천권을 거머쥔 뒤 광주시장에 당선됐다.

강기정 시장은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 "아직 지방선거를 논하기엔 너무 이르다. 출마할지 안 할지는 (지금 시점에서) 말할 게 없다. 다음에 이야기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피력했다.

강 시장에 맞설 대항마로 행정관료 출신인 문인 북구청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문 북구청장은 지방·중앙을 두루 거치며 쌓은 행정 경험과 관록이 최대 강점이다. 기술고등고시 토목직렬 수석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해 광주시 기획조정실장·행정부시장,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 소장 등 30년 이상의 행정 경험을 갖췄다.

민선 7기부터 북구청장을 역임했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동찬 시의원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문인 청장은 출마 여부에 대해 "현직 신분이라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주변에서 (광주시장 출마를 권유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를 재선 국회의원의 행보도 주목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비록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광주의 대표적인 진명 계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해남 출신인 민 의원은 21·22대 국회의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원내부대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민선 5·6기 광산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민형배 의원은 "진짜에 (출마를) 마음 먹고 있었다"며 "당과도 상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병훈·이형석 전 국회의원도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행정 관료 출신인 이병훈 전 의원은 38대 광양군수,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특보 등을 두루 거쳤다.

보성이 고향인 이병훈 전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출마할 생각"이라며 "그 동안 쌓아온 정치·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해 보려고 한다"고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순천 출신인 이형석 전 의원은 8대 광주시의회 의장,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 민주당 최고위원, 광주시 경제부시장, 21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이형석 전 의원은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라며 "조기 대선이 이제 마무리된 시점인 만큼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천타천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아직 지방선거 관련 당내에서 한 차례도 논의된 바 없다. 당 입장에서나 개인으로서나 광주시장 출마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지역위원회 구성 등 조직 준비가 이뤄진 뒤에 차츰 논의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중노동당에서는 강은미 광주시당위원장, 진보당에서는 김주업 광주시당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강은미 시장위원장은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며 "대선 평가 이후 중앙당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논의해서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업 시장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광주시장 후보를 출마시킬 예정이긴 하나 누가 출마할지는 아직 당 내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직전 선거에서 출마 경험도 있고 현재 시장위원장도 맡고 있는 만큼 출마를 전혀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 김영록 '3선 가도'...민주 국회의원들 '호시탐탐'

## 전남지사

김영록 "도정 연속성" 출마 의지  
이개호 "당연히 출마...정책 구상"  
신정훈 "준비 중...열심히 하겠다"  
주철현 "동부권 지역민 열망 커"  
서삼석 "권유많아 고심하고 있어"

내년 6·3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지역 내 최대 관심 선거구 중 하나인 전남지사서 향한 정치권의 물밑 싸움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

전남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사실상의 본선이 될 전망이다. 민선 7·8기 재선 도백(道伯)인 김영록 지사의 3선에 맞서 다선 국회의원 그룹이 도전하는 형태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김영록 지사의 3선 성공 여부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3선 도백으로 이름을 올린 도지사는

박준영 전 지사(2004년 6월~2014년 6월)가 유일하다. 박 전 지사의 경우 고(故) 박태영 전 지사(2002년 7월~2004년 4월)의 사망으로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만큼 '2.5선'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허경만 전 지사(1995년 7월~2002년 6월)는 재선에 그쳤고, 이낙연 전 지사(2014년 7월~2017년 5월)는 초선 재임 중 국무총리로 발탁돼 재임 기간이 채 3년이 되지 않았다.

김영록 지사가 3선에 성공하면 진정한 3선 도백으로 기록된다는 의미다.

완도 고금 출신인 김 지사는 강진군수와 완도군수,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뒤 18·19대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문재인 정부 초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민선 7기 전남지사서 당선됐으며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

김 지사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평가에서 민선 7·8기 기간(2022년 2월~4월 지방선거로 조사 미시시) 77개월 중 58개월 동안 1위에 오를 정도로 도정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도정의 연속성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겠다"며 "(민선 7·8



기 동안) 기존 노후도 있고, 통상 핵심 현안이 완결될 때까지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벌여 놓은 많은 현안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다선 국회의원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후보군은 이개호 국회의원(4선, 담양·함평·영광·장성), 신정훈 국회의원(3선, 나주·화순), 서삼석 국회의원(3선, 영암·무안·신안), 주철현 국회의원(재선, 여수갑)이다.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개호 의원은 전남도에서 대부분의 공직 생활을 했으며 행정부지사를 끝으로 퇴임한 뒤 정치인

으로 변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김영록 지사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맡았다.

담양 출신인 이개호 의원은 "당연히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다. 이미 기정사실화 했다. 대선 때문에 준비 작업을 중단했던 것"이라며 "대선이 끝난 만큼 조직 구축도 하고 8월까지 정책 개발에 전념할 생각이다. 올해 말께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주 출신 신정훈 의원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아 당내에서 존재감을 보였고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대선이 끝났으니 이제 전남지사 선거 준비를 시작할 생각"이라며 "관련 일정이나 계획 등은 더 준비해서 발표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의원도 출마표를 던졌다. 여수가 고향인 주 의원은 "동부권 출신 지사에 대한 동부권 지역민의 열망이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은 잡지 않았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무안 출신 서삼석 의원은 출마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서 의원은 "주변에서 전남지사 선거에 나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아직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며 "정치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안정되는 상황을 지켜본 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시장의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화진 통합위원장 겸 전남도당위원장, 진보당에서는 민정기 전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재정 기자

더 오래,  
더 든든하게

사장님 곁에  
언제나

소득공제  
최대 600만원

복리 이자  
목돈 마련

부금 내  
대출 지원

공제금  
압류 금지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필 제24-167호(2024. 12. 24. ~ 2026. 1. 31.)

가입문의 1666-9988